

본문 : 마태복음 6 장 31-33 절

제목 :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1. 간증 한 꼭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고 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본문은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알려 줍니다. 사람이라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매우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본문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함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현대의 미국에서 활동하셨다고 하면 아마도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에 더해서 타고다니는 것도 걱정 하지 마라고 추가 되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자동차가 없이는 생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뉴욕이나 엘에이 같은 곳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가 잘 돼 있어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자동차 없이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매우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생활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저는 최근에 자동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는 간증으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미네소타에 살아갈 때, 사슴을 치는 일은 일상다반사라고 하더군요. 자동차 바디샵에 가 보십시오. 사슴 친 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지 알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슴을 치기 전까지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죠. 저도 지난 1 월 2 일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이미 한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슴이 기를 쓰고 제 차 앞으로 갑자기 달려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제 차에 부딪힌 사슴은 큰 데미지를 입었고, 보험을 들 수 없는 사슴이 너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저는 다행히 보험으로 차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며칠이 못되어서 보험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차가 Total Loss 처리 될 것이고, 수리비 대신에 자동차 벨류에 맞는 보상금이 입금 될 것이라 말하더군요.

그 순간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큰 감정은 슬픔이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강아지나 고양이가 죽으면 사람을 잃은 듯한 슬픔을

경험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아무 감정이 없는 물건인데도 갑자기 사라지니 상실감이 너무나 크더군요. 그 차는 우리 가족에게 정말 특별한 차였기 때문이었죠. 그 차를 가지고 미국의 38 개의 주를 누볐기에 준비되지 않은 이별이 너무나 슬프게 다가왔던 겁니다. 그 다음 감정은 당황스러움이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머리가 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아내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쇼핑입니다. 우리 둘 다 뭘 고르는 것을 힘들어 합니다. 아내는 저랑 결혼 할 때 저를 선택하느냐 마느냐 상당히 애먹었다 들었습니다. 아무튼 중고차를 할 지 세차를 할지는 의외로 쉽게 정해졌습니다. 버짓이 중고차를 살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죠. 결론적으로 저희는 우리가 타던 차를 그리워 했고, 가족들 모두 우리가 타던 차랑 같은 종류의 차를 선택하자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마침 로체스터 혼다 딜러샵에 미내벤 중고차가 보상된 가격이란 맞게 나왔길래 지난 월요일에 보러 가기 위해 집을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딱 그때를 맞춰 미국 목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오더군요. " Are you ready for some good news?" 목사님의 문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Jeannie Byer 라는 백인 할머니께서 저희 소식을 듣고 마음이 감동하셔서 헌금하고 싶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니 할머니는 5 살에 아버지를 따라 아프리카 짐바브웨로 선교를 나갔던 할머니였습니다. 선교사 자녀이셨던 것이죠. 의사인 남편을 만나서 1977 년에 로체스터로 오셨다고 합니다. 선교사 자녀였던 저희 아이들에게 마음이 동하셨는지 정말 큰 액수를 저희에게 헌금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중고차를 사러 나가던 길이었는데, 하나님은 저희 가족에게 새 차를 주고 싶으셨었나 봅니다. 저희는 이전 차와 똑같은 새 자동차를 선택하여 떠나 보낸 자동차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기로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사고가 나고 자동차가 건인 될 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리버설을 이번에 너무나 극적으로 경험하였고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2.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에게 일어난 일이 모두에게 일어난 일어난다는 법은 없지만 이번에 제가 겪은 체험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예 응답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본문은 말해 줍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고 토틸 로스 통보를 받고 암담한 마음을 일기에 담았습니다. 나중에 읽어보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도와주세요 주님!”이라는 문구로 도배가 되어 있더라구요. 교회에 오면 본당에 무릎을 꿇고 평소에 하던 침묵 기도 대신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부르짖는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님을 여러분 모두 잘 아시죠? 이 분은 유명한 오르가니스트였고 신약학 박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 의사로서 아프리카 선교를 나가신 훌륭한 분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백성의 신음 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시는 분이다.” 이 땅에서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질 줄 믿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 비전을 따라 살면 돈은 따라오는 법입니다.

두번째 깨달음은 비전을 따라 살면 돈은 따라오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돈을 따라살게 되면 비전과는 멀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비전은 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저희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돈을 따라가지 말아라. 니가 선택할 수 있다면 돈이 덜 되는 쪽을 선택하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클리블랜드 가디언즈에 호세 라미레즈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에게 호감이 많이 갑니다. 그는 돈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세는 클리블랜드라는 팀이 좋아서, 다른 팀에서 수천만 달러 더 준다고 해도 가지 않고 그 팀에 남았습니다. 매우 긍정적이어서 작년에 홈런 한 두개 차이로 40 홈런 40 도루 클럽에 들지 못했는데도, 내년에 잘해서 들면 된다고 싱글벙글 합니다. 야구 자체를 즐기고, 팬들과의 우정을 즐기는 그가 좋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내 삶을 드리겠다고 마음 먹을 때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저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이 저의 비전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명확한 기준이 제 삶에 있었죠. 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돈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된 적이 없습니다. 비전을 따라 가는 곳에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음을 믿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마음 먹고 대학 생활의 한 학기는 선교지에서 보내야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선교사님이 일제 시대에 세운 교회로 100 년이 넘는 교회였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교회였죠. 심지어 단기 선교 여행도 실시해 보지 않는 매우 보수적인 교회였죠. 그런데 제가 대학생으로서 선교지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수적인 교회에서 놀라운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의 선교지 생활비와 항공비 일체를 교회에서 후원하겠다는 결정이었죠. 당시 저의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이었는데 교회의 파격적인 대우를 보고 감동을 받아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셨지요. 그렇게 기도하던 가족 구원이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 자연스레 이뤄지더군요. 그때 저는 경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arrange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어요. 제가 로체스터에 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곳을 선교지라 생각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이번 자동차도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라 믿습니다.

4. 덕분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계기를 통해 다시 한 번 깨닫는 것은 저는 덕분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비전을 좇아간다 하더라도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저와 함께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저희를 도와주셨던 지니 할머니는 이미 저보다 훨씬 전에 선교지에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저보다 훨씬 먼저 로체스터에 정착하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셨지요. 할머니께서 뒤따라 가는 저희의 삶에 감동하셔서 마음이 움직인 것이고, 할머니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런 간증도 없었겠죠. 그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는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진한 우정을 느꼈고, 내가 여러분 덕에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뼈절이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없이 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5.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십시오

지니 할머니께서 저희를 처음 만나고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시더라구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재산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재정을 당신들에게 아낌 없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이 말씀은 저의 마음 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다시 한 번 제 삶을 돌아보게

하였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았던 저의 삶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잇대어진 인생이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도 내가 발버둥치며 해결하려 안간힘을 쓴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지금도 항상 저의 삶을 점검합니다. 제 삶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있어서 모자람이 느껴질 때마다 내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인지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에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공중의 새처럼 돌보시고, 들의 핀 꽃처럼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결코 주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우리 필요를 먼저 아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